

어휘확산이론의 변화와 발전 *

김 영 찬**

<目 次>

- | | |
|-------------------|---------------------|
| I. 서론 | IV. 상보적 관점: 라보프의 제안 |
| II. 신문법학과의 규칙성 가설 | V. 어휘확산이론의 변화 |
| III. 어휘확산이론 | VI. 결론 |

I. 서론

역사언어학자들의 심중에서 언제나 떠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바로 언어변화는 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저런 언어 특수적 상황과 자질을 넘어서 일반적인 언어 변화의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것이 역사언어학자들의 소망이었다. 언어 변화의 메커니즘에 관한 일반적 설명 즉 언어변화이론은 여러 형태가 있었지만 항상 그 기본 관념은 유럽의 신문법학과의 관점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18세기 이래 발전한 유럽의 역사언어학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르러 신문법학과의 출현을 계기로 체계적인 음성변화 이론¹⁾을 맞이하게 된다. 신문법학과 이전의 역사언어학자들은 대체로 음성변화의 원인에 대하여 단편적이고 인상적인 설명을 내놓았을 뿐 설득력있고 영향력있는 설명을 내놓지는 못했다. 그들은 대체로 성서의 신화에 기초를 둔 바벨탑 가설이나 언어 유기체설과 관련있

* 이 논문은 2004학년도 동의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동의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전임강사

1) 20세기 이전의 서양 역사언어학에서 언어변화는 곧 음성변화였다.

는 언어타락론 등을 내세워 음성변화 사실을 해석하려 했을 뿐이다. 또한 한편으로는 언어 변화는 발화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데서 발생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는 언어 변화의 원인을 설명하는 텍스트나 이론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이 주장은 규범문법가들이 제기하는 언어의 타락이나 발화자의 게으름과도 맥이 닿아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영어 whale의 두음을 [h]로 발음하지 않고 [w]로 발음하는 것은 [h]를 발음하는 것이 [w]를 발음하는 것보다 더 큰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이며 좀 더 편리하고 쉽게 발음하기 위해 [w]로 발음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화자들이 언제나 좀 더 노력이 덜 들어가는 발음을 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면 왜 궁극적으로 모든 모음을 가장 노력이 덜 들어가는 슈와 모음으로 발음하지 않는 것일까? 발음의 경제성 추구에 반하는 단적인 예로 중국어의 권설음의 역사를 들 수 있다. 현대 중국어의 권설음은 처음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고대의 치음 계열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것이다. 치음과 권설음을 비교해 볼 때 권설음을 발음할 때의 구강의 긴장도가 훨씬 더 높아서 발음에 들어가는 노력이 더 큰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발음의 경제성 추구와는 반대의 경로로 변화했을까? 이 견해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이런 상황은 독일의 신문법학파가 이전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고 종합한 결과로 규칙성 가설을 제시함으로써 일변하게 되었고 이후 이 가설은 20세기에 들어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가설은 1969년 Wang S-Y(王士元)이 “Competing changes as a cause of residue”라는 논문을 통해 음성변화의 무예외성과 급진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어휘확산 이론을 제시하면서 새롭게 검토되기 시작했다. 현재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두 가설은 양측에서 반론과 재반론이 이루어지면서 경쟁 중이며 뒤늦게 출발한 어휘확산이론이 점차 이론에 대한 증거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발전해가고 있는 중이다. 이 논문은 두 이론이 어떤 내용과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하고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이론이 어떻게 통합되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II. 신문법학과와 규칙성 가설

신문법학과는 19세기 후반 독일의 라이프찌히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파울, 브루그만, 오스토프 등의 일군의 젊은 언어학자들을 지칭한다. 그들은 18세기 이래 유럽에서 진행되어온 역사언어학의 전통을 이어받는 한편 19세기 후반 유럽 과학의 발전에 발맞추어 자연과학에서의 기계적 법칙에 지배되는 세계상을 언어 연구에까지 확산시켜 언어를 지배하는 자연 법칙에 필적하는 언어학 법칙을 찾아내려고 하였다. 그들은 공시대를 중시하는 20세기의 연구 태도와는 달리 언어학은 곧 언어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규명하는 역사언어학이라는 신념 하에 통시대를 중시하며 음성의 역사적 변화의 연구를 통해 음성 변화를 지배하는 원리를 찾아내고 연구 방법론을 수립하려 하였다.

그들이 공시대보다는 통시대를 더 우선시한 것은 그들의 2가지 관심사 때문이었다. 첫째 그들은 역사적 친연성이 있는 언어 사이에 나타나는 규칙적이고 공통적인 음성적 유사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의미가 동일한 독일어 단어와 영어 단어의 대응 관계를 살펴보자

독일어	영어
zu	to
zhen	ten
zeit	time
zahn	tooth

이 단어쌍들은 이른바 친연성이 있는 언어 사이에 나타나는 ‘동족어로서 어두자음에서 z와 t가 규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족어 사이에서 z와 t의 규칙적인 대응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문법학과는 음성변화 법칙을 이용하여 이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다. 독일어와 영어는 별개의 언어로 분화되기 이전의 어떤 단계에서 하나의 언어였을 것이다. 이 언어를 독일어-영어 공통 조어라 하자. 그러면 독일어-영어 공통 조어에서는 위의 z와 t가 동일한 어떤 하나의 음이었을 것이다. 이를 x라 하자. x의 음가는 고문헌이나 고행을 간직한 방언을 통해 밝힐 수 있다. x의 음가가 입증이 되면 자연스럽게 $x > t$, $x > z$ 의 음성변화 법칙이 드러날 것이다. 위와 같은 규칙적인 대응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음성변화 법칙이 규칙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규칙적인 형태의 출현은 규칙적인 음성변화의 결과이다.

둘째 그들은 공시적 불규칙성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영어의 복수형은 대부분 복수 어미 -s를 붙이지만 foot는 복수형이 foots가 아니라 불규칙형 feet이다. 이러한 공시적 불규칙성은 공시태의 관점에서는 그야말로 설명 불가능한 불규칙형일 뿐이며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신문법학파는 통시태에서 위와 같은 불규칙형이 생성되는 역사를 추적함으로써 그것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를 밝힐 수 있다고 믿었다. 불규칙형도 자신의 필연적인 역사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또다른 규칙의 결과일 뿐이다. 불규칙형의 생성 과정이란 바로 음성변화 법칙의 적용의 역사이다. 다음은 불규칙형 feet가 나타나는 과정이며 그에 관계된 음성변화 법칙이다.

	단수	복수
先-고대영어	*fōt	*fōti
모음동화	*fōt	*fōti
고대영어	fōt	fet
대모음추이	[fu:t]	[fi:t]
현대영어	foot	feet

先-고대영어의 복수 표지는 고모음 i였다. 이 모음은 후에 앞에 있는 모음을 전설모음으로 동화시켜서(i-Mutation) fōti를 *fōti로 만든다. 고대 영어에 이르면 어말의 복수 표지는 탈락되고 원순모음은 원순성을 잃

고 비원순모음으로 변화하여 *fōti는 fet가 된다. 고대 영어의 모음은 현대 영어에 이르는 동안 대모음추이라는 음성변화를 겪었는데 위의 고대 영어의 두 형태도 같은 음성변화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현대 영어의 foot, feet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설명은 표면적인 불규칙형 또는 정형에 대한 예외형도 규칙적인 음성변화의 적용 과정을 이용하여 설명해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 예는 그림법칙과 관련된 예는 표면상 규칙에 대한 예외가 어떻게 규칙성에 통합되는지를 보여준다. 인구어 게르만어에서 이른바 그림법칙이라 불리는 다음과 규칙적 변화가 있었다.

그림 법칙

- a. 무성파열음 > 무성 마찰음
인구조어 *p t k > 독일어 /f θ x/
- b. 유성파열음 > 무성 파열음
인구조어 *b d g > 독일어 /p t k/
- c. 유성 유기 파열음 > 유성 파열음
인구조어 *bh, dh, gh > 독일어 /b d g/

위의 그림 법칙에는 다음과 같은 두 종류의 예외가 있다.

(1) 라틴어	고트어	고대 영어	
captus	hafts	hæft	‘죄수(prisoner)’
piscis	fisks	fisc	‘물고기(fish)’
spuo	speiwan	spiwan	‘뱀다(spit)’

단어 그 자체로는 예외가 아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piscis의 두음 /p/는 완전히 규칙적으로 마찰음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림 법칙은 충분히 신중하게 구성된 것이 아님이 드러나서, 무성파열음이 앞에 다른 파열음이나 마찰음이 올 때에는 언제나 마찰음으로 변

하지 않는 현상을 일반화하지 못했음을 알게 된다. 사실 이것은 예외가 아니라 하위규칙이다. 따라서 그림법칙의 (a)는 다음과 같이 재구성되어야 한다.

무성 파열음 > 무성 마찰음

비로 앞에 파열음이나 마찰음이 오지 않을 때

두번째 문제는 좀 복잡하다. 그림 법칙에 따르면 인구조어 무성파열음은 독일어 무성 마찰음으로 되어야 하지만, 때로 독일어 유성파열음이나 유성마찰음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인구조어 *bhrater- ‘형제(brother)’는 *t > /e/ 변화를 거치면서 고트어에서 brōþar가 되었지만 인구조어 *pater- ‘아버지(father)’는 *t가 유성음 /d/가 되면서 고트어 fadar로 되었다. 이 이상한 변화는 유성음의 변화를 불규칙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며 그 맥락을 찾아내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러나 칼 페르너(Karl Verner)는 인구조어의 강세의 위치와의 연관성에 주목했다. 유성음은 인구조어 무성 파열음이 유성음 사이에 나타나면서 앞 음절에 강세가 없을 때에만 나타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림 법칙에 따라 규칙적으로 무성마찰음으로 변한다.

이 발견에 대하여 있을 수 있는 반응은 그림 법칙을 다시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페르너는 그런 방식이 옳지 않다고 여겼다. 왜냐하면 그가 주목한 유성음은 단일한 마찰음 *s-이 음은 그림 법칙이 적용되기 이전에 인구조어에 존재했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페르너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변화를 구성했다.

페르너의 법칙

무성 파열음이 모음 사이에 있고 앞에 있는 모음에 강세가 없을 때,

무성 파열음 > 유성 파열음 또는 유성 마찰음

이것이 바로 규칙의 무예외성을 확신케했던 페르너의 법칙이다. 페르너의 법칙은 그림 법칙의 하위 법칙으로서 그림 법칙의 관점에서 볼 때 불규칙형인 현상들을 또다른 규칙성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언어간 유사성과 공시적 불규칙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음성변화가 동일한 음성환경에 대해서는 언제나 규칙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가정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신문법학파의 음성변화의 규칙성 가설이다. 규칙성 가설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첫째 음성변화는 규칙적이며 예외가 없다. 모든 음성변화는 동일한 음성환경에 대하여 예외 없이 적용되며 만약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또다른 어떤 음성변화가 규칙적으로 적용된 결과이다. 둘째 음성변화는 순수하게 음성적 요인에 의해서만 일어나며 문법이나 형태론 등의 요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음성변화는 문법이나 형태론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맹목적인 필연성'에 따라 진행된다. 셋째 음성변화는 음성 환경이 같은 모든 단어에 그리고 같은 언어공동체에 속하는 모든 화자에게 동시에 일어난다. 넷째 음성변화는 화자들이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하고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첫번째 가설이 주장하는 무예외성 내지 규칙성이라는 것은 결국 '어휘적 규칙성(lexical regularity)'으로서 어떤 음이 변할 때 그 음이 동일한 환경과 함께 나타나는 모든 어휘가 변한다는 뜻이 된다. 이러한 어휘의 변화는 세번째 가설에 의하면 또한 일시에 즉 급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음성의 변화는 네번째 가설에 의하면 일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결국 신문법학파의 규칙성 가설은 음성변화란 '음성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어휘적으로는 급진적으로' 일어난다는 주장인 것이다.

III. 어휘확산이론

어휘확산이론은 Wang S-Y(1969)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Wang은 처

음에 규칙적 음성변화에 대한 예외는 출혈 관계에 있는 두 규칙의 겹치기 적용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는 기존의 규칙의 순차적으로 적용되거나 상보적으로 적용된다는 규칙성 가설의 주장과는 다른 새로운 생각이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그는 북경대학에서 간행된 중국의 17개 방언의 2,444개 형태소에 대한 음성 전사로 이루어진 <漢語方音字彙>의 자료와 중고음 및 한국, 일본, 베트남 한자음을 기초로 조성된 DOC라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그는 애초에 계획했던 것 이상의 심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신문법학과의 규칙성 가설 자체에 대한 의심이었다. 어휘확산이론은 크게 보아 두 가지 가설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가설은 음성변화는 모든 어휘 또는 모든 음성환경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휘확산이론에 따르면 음성변화에 있어서 음성적 측면과 어휘적 측면의 진행 양상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 가능성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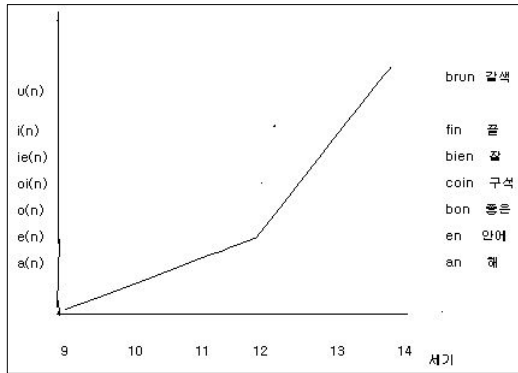
	음성적 측면	어휘적 측면
가능성1	급진적	급진적
가능성2	급진적	점진적
가능성3	점진적	급진적
가능성4	점진적	점진적

가능성3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 신문법학과의 규칙성 가설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음성변화는 화자가 인지할 수 없는 미세한 음변화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므로 음성적으로는 점진적 양상을 띠며 동일 환경의 모든 어휘에 동시에 적용되므로 어휘적으로는 급진적 양상을 띠게 된다. 모든 음성변화가 점진적 양상을 띠는지에 대해서는 의의를 제기할 만한 반증들이 있다. 실제로 어떤 음성 변화들은 점진적 과정을 상징하기 힘든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배열교체변형, 음운전위, 유성음화, 비음화 같은 음성변화는 중간단계를 설정하기가 힘들다. 또한 음

운삼입이나 음운탈락 같은 변화들도 중간단계를 상상할 수 없다. 따라서 점진적 음성변화는 약화나 동화 같은 일부 유형에 국한되기 때문에 급진적 음성변화를 포함하는 관점이 더욱 설명력이 있다. 어휘적 측면에서 음성변화는 신문법학파의 주장과는 달리 시간축을 따라서 어휘에서 어휘로 점진적으로 확산되어 나간다고 생각한다. 즉 음성 변화의 적용 단위는 음이 아니라 어휘이다. 어떤 어휘군에 대하여 음성변화는 그 어휘군 전체에 대하여 일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일부 어휘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다른 요소가 개입하지 않는 한 전체로까지 퍼져나간다는 것이다. 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변화형과 비변화형이 공존한다. 비변화형을 U, 변이형을 V, 변화형을 C, 시간을 t, 어휘를 W라 할 때 어휘확산이론에 따른 음성변화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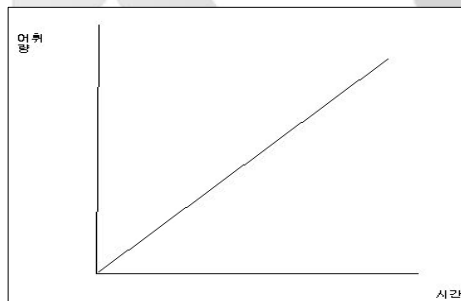
	t1	t2	t3	t4	t5	t6	t7
w1	U	U	U	U	U	V	C
w2	U	U	U	U	U	V	C
w3	U	U	U	U	V	C	C
w4	U	U	U	V	C	C	C
w5	U	U	V	C	C	C	C
w6	U	V	C	C	C	C	C
w7	U	V	C	C	C	C	C

t1은 변화가 일어나기 전 단계를 나타내고 t7은 변화가 끝난 후의 단계를 나타낸다. t2-t6은 변화가 진행되는 동안 변이형이 공존하는 상태를 나타낸다. Chen(1972)은 이런 프랑스어에서 어말비자음의 탈락과 이에 따른 선행모음의 비모음화 현상을 역사적으로 검토하여 위와 같은 유형의 변화가 실제로 존재함을 밝혀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어말비자음 탈락과 선행모음의 비모음화 현상은 처음에는 일부 어휘에만 적용되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프랑스어 전체 어휘로 확산되어 나가서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정착되었다고 한다. 다음은 그러한 변화의 양상을 보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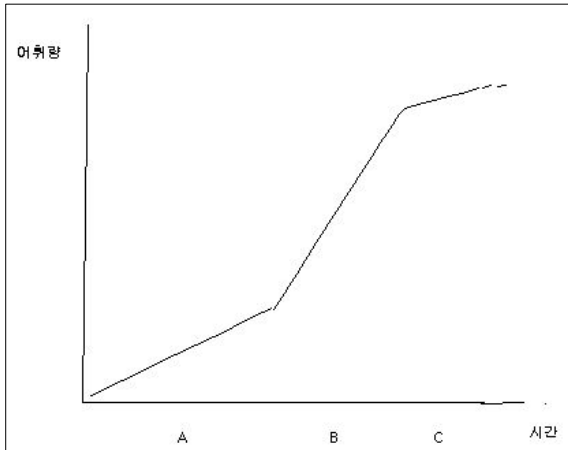


모음+어말 n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위의 프랑스어 규칙은 9세기~10세기 경 시작되었는데 9세기에 해당 환경을 가진 모든 어휘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을 가진 an과 같은 일부 어휘에서 시작되어 en, on 등의 어휘로 확산되어 나갔고 14세기에 이르러서는 동일 환경의 모든 어휘로까지 확산되어 결과적으로는 모든 모음+어말 n 환경을 가진 어휘에 다 적용되는 규칙이 되었다.

어휘확산이론의 두번째 가설은 변화의 비율 즉 변화의 진행 속도 내지는 확산의 속도와 관련이 있다. 음성변화가 어휘를 따라 확산되어 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확산의 구체적인 양상은 어떠할까? 확산이 진행되는 속도가 일정하다면 음성변화의 양상은 다음과 같은 직선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휘확산이론에 따르면 음성변화는 직선 형태 즉 일정한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단계에 따라 상이한 속도로 진행된다. 이를 그래프의 형태로 나타내면 s자 모양의 곡선 모양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그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시간을 세로축은 음성 변화의 영향을 받은 어휘의 양을 나타낸다.

A단계에서 소수의 어휘군에서 새로운 발음 형태가 나타난다. 이 어휘들은 어떤 공동체의 하위집단이나 하위문화에 중요한 단어들이일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발음 형태는 느린 속도로 어휘를 가로질러 확산되어 나간다.

B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변화된 발음 형태가 확산되어 나간다. 그 결과 그래프 상에서는 가파른 곡선으로 나타난다.

C단계에서는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어휘에 규칙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느린 속도로 변화가 진행된다. 이 단계가 끝나면 변화가 완성된다.

A에서 C까지의 변화 양상은 전체적으로 느림-빠름-느림의 양상이라 할 수 있어서 '눈덩이 모델(snowball model)'이라고도 불린다. 눈덩이는

언덕 아래로 굴러내려갈 때 처음에는 천천히 내려가다가 가속을 받아 중간에는 빠르게 하강하고 마지막에는 점차 속도가 줄어 바닥에서 멈추는 느낌-빠름-느림의 운동 형태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음성변화는 다른 요인이 개입되지 않는다면 변화 규칙을 충실히 따라서 결과적으로 관련된 모든 어휘가 변화를 겪을 것이고 예외적인 형태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보편적인 언어 사실과는 상치되는 논리적 결론으로서 실제 언어 현상에서 나타나는 동일 환경을 가지면서도 변화 규칙의 영향을 받지 않은 예외 형태들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어휘확산이론은 이러한 예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정도의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가) 예외 형태는 확산 과정이 다 끝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표지이다. 확산 과정이 완료되면 이 예외들은 규칙적인 형태가 될 것이다.

나) 예외 형태는 확산 과정이 전체 어휘로까지 진행되기 이전에 그 추진력을 잃고 멈추어 버린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다) 예외 형태는 어떤 변화 과정이 나타나고 이후에 그와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변화 과정이 나타나 변화의 진행 방향을 역전시킬 경우 그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라) 예외 형태는 장기간의 변화 과정에서 경쟁적인 몇가지 음성 변화가 상호 작용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어휘확산이론에 따르면 음성변화는 각각의 변화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겹쳐 일어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일어난다. 겹침의 양상은 보통 다음 세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a. 동시 발생

변화 A -----

변화 B -----

b. 포함

변화 A -----

변화 B -----

c. 부분 일치

변화 A -----

변화 B -----

두 종류의 음성변화 A, B가 있다고 할 때 이들은 완전히 같은 시기에 변화 과정이 진행될 수도 있으며(a. 동시발생) 변화 A가 진행되는 동안 변화 B가 변화 과정을 시작하여 A가 종료되기 전에 자신의 과정을 마칠 수도 있고(b. 포함) 두 변화가 순차적으로 일어나되 일부 시기가 겹칠 수도 있다.(c. 부분 일치)

일반적으로 두 변화는 겹쳐 일어나더라도 별개의 환경에 놓여 있는 별개의 분절음에 적용되기 때문에 변화의 시기가 겹치는 것 이외의 의미는 없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환경의 동일한 분절음에 경쟁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예외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경쟁적 음성변화의 예를 중국어에서 볼 수 있다. 현대 북경어의 다음과 같은 어휘들의 운모는 역사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인다.

牌	[phai]	釵	[tshai]
罷	[pa]	叉	[tsha]

그러나 이 어휘들은 중고음에서는 다음과 같이 모두 동일한 운모를 가지고 있었다.

	현대북경어	중고음
牌	[phai]	[bhai]
罷	[pa]	[bhai]
釵	[tshai]	[tshai]
叉	[tsha]	[tshai]

위 어휘들의 중고음 운모 [ai]는 동일한 음성환경에 놓여 있으므로 동

일한 음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실제 결과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변화의 불규칙성은 어휘확산이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두 종류의 변화가 개입한 결과이다.

변화 1	운미 탈락	[ai] > [a]
변화 2	저모음 전설모음화	[ai] > [æi] (>[ai])

변화 1과 변화 2는 서로 적용 순서를 다투어서 牌, 釵에는 변화 1이 먼저 적용되고 罷, 叉에는 변화 2가 먼저 적용된 결과 위와 같은 결과를 낳은 것이다.

IV. 상보적 관점 : 라보프의 제안

위에서 언급했듯이 신문법학파는 음성변화는 음성적으로는 점진적이며 어휘적으로는 급진적인 양상을 갖는다고 하였다. 한편 음운삽입, 음운탈락, 유성음화, 비음화 등 중간단계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급진적 음성변화로 봄이 타당한 음성변화 유형이 있으며 프랑스어의 어말비음 탈락과 같이 관련 어휘에 일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어휘에서 어휘로 점진적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음성변화 유형이 존재한다. 요컨대, 음성적으로 점진적이고 어휘적으로 급진적인 신문법학파의 음성변화 이론과 음성적으로 급진적이고 어휘적으로 점진적인 어휘확산이론이 공존하게 되는 것이다.

대립하는 이 두 이론에 대하여 라보프는 변화가 진행 중인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어느 모델이 더 타당한지를 보여주려고 하였다. 그는 이전의 연구가 이미 오래 전에 변화 과정이 끝난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사례들은 변화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진행 중인 변화는 이와는 달리 변화의 진행

과정을 보다 잘 관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연구 결과 그는 변화 사례들이 어느 한쪽 모델에만 속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어떤 사례들은 신문법학과와 가설을 통해 잘 설명될 수 있었고 또 어떤 사례들은 어휘확산 모델이 잘 들어맞았다.

표면적으로는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두 이론을 모두 입증해주는 두 유형의 언어 사례들이 존재함을 알게 된 후 라보프는 애초에 이론의 타당성과 우위성을 증명하려던 목표를 수정하여 두 모델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모든 음성변화가 음성적으로 급진적이고 어휘적으로 점진적이라고 말하거나 또는 반대로 모든 음성변화가 음성적으로 점진적이고 어휘적으로 급진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음성변화에는 두 가지 유형이 공존하는데 하나는 신문법학과와 가설대로 진행되는 음성변화이고 다른 한 쪽은 어휘확산이론의 모델에 따라 진행되는 음성변화이다. 그에 따르면 두 유형의 음성변화는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갖는다.

	<어휘확산>	<신문법학과>
이분법적	예	아니오
음성 환경	민감하지 않음	민감함
예외 어휘	있다	없다
문법 환경	영향 받음	영향 받지 않음
사회적 영향	영향 받지 않음	영향 받음
예측 가능성	불가능	가능
학습 가능성	불가능	가능
범주화	가능	불가능
사전 표제 항목	2	1
어휘 확산	그렇다	아니다.

어휘확산적 음성변화는 유성음이거나 무성음, 비음이거나 구강음 등의 불연속적인 결과를 낳는다. 반면 신문법학과적 음성변화는 모음이 좀 더

길어진다거나 짧아지는 것과 같은 불연속적인 범주로 분할하기 힘든 연속적인 결과를 낳는다. 어휘확산적 변화는 음성적 조건의 영향을 그리 크게 받지 않으며 문법적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 반면 신문법학파적 변화는 오직 음성적 조건의 영향만을 받으며 문법적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어휘확산적 변화는 확산의 영향력이 닿지 못한 어휘적 예외형들을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신문법학파적 변화는 예외를 남기지 않고 모든 어휘에 다 적용된다. 신문법학파적 변화는 사회적으로 유의미하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언어공동체 외부에서 새로이 공동체 내부로 진입하는 화자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를 학습할 수 있다. 그러나 어휘확산적 변화는 그렇지 않다. 어휘확산적 변화는 화자가 변화 이전의 형태와 변화가 일어난 이후의 형태를 구별할 수 있는데 이는 보통 어휘확산적 변화가 양가대립하는 두 요소 예를 들면 대립하는 두 음소, 두 형태소, 두 어휘 사이에서 종종 관찰되기 때문이다. 반면 신문법학파적 변화는 대립적인 요소 사이에 나타나기 보다는 연속값을 갖는 요소에서 값의 미세한 변화로 나타나기 때문에 관찰이 불가능하다. 어휘확산적 변화는 어휘부를 가로질러 확산되어 나가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신문법학파적 변화는 어휘부 전체에서 일시에 일어난다.

라보프는 또한 “아래로부터의 변화”와 “위로부터의 변화”라는 개념을 통해 두 유형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신문법학파적 변화는 정도의 차이가 중시되는 음소의 어떤 한 음성 자질이 점진적으로 변화한 결과 나타난다. 이 유형의 변화는 언어 체계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초기 단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또 어휘적 조건이나 문법적 조건 또는 사회적 자각과도 무관하게 일어난다. 이것이 “아래로부터의 변화(change from below)”라고 했다. 한편 어휘확산적 변화는 어떤 어휘 안에서 한 음소가 다른 음소로 급작스럽게 교체되는 음변화의 결과로 나타난다. 교체 이전의 음소와 교체 이후의 음소는 여러 항목의 음성 자질이 다르다. 이 유형의 변화는 어휘적 조건, 문법적 조건,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각 또는 다른 언어 체계로부터의 차용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것은 “위로부터의 변화(change from

above)”이다. 이러한 두 유형의 변화의 속성을 감안하면 각각의 변화가 나타나는 영역이 다음과 같이 대별되며 두 변화는 상보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

<신문법학과적 변화>

조음장소의 변화에 의한 모음추이

고모음의 이중모음화

조음방법의 변화에 따른 자음의 변화

유음의 모음화

활음/슈와 모음의 탈락

<어휘확산적 변화>

분절음 장음화 또는 단음화

중모음/저모음의 이중모음화

조음장소 변화에 따른 자음의 변화

유음/파열음의 음운도치

장애음의 탈락

V. 어휘확산이론의 변화

라보프가 “아래로부터의 변화”라는 개념을 통해 어휘확산이론의 적용범위를 정하려고 한 것은 결국 어휘확산이론에 변화의 동인으로서 방언 차용 등의 언어 외적 요인을 도입한 것이었다. 신문법학과적 규칙성 가설이 변화의 동인으로서 방언 차용을 인정했는데 비해 초기의 어휘확산이론은 이를 부정하고 오직 언어 내적 체계에 의해서만 변화가 일어난다는 관점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어휘확산이론은 외부적 요인 즉 방언 차용의 영향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애초에 그들이 어휘확산이론의 증거로 제시했던 조주 방언의 거성조 분포를 제시했었다.

	현대 潮州 방언 2b	성조 분포 3b
중고 성모		
b	6	7
v	1	3
d	11	14
dz	6	2

z	3	3
:		
dj	2	1
g	6	4
ʎ	14	15

위와 같은 潮州 방언의 동일한 음성 맥락에서의 2b 성조와 3b 성조의 균등한 분포는 오직 어휘확산적 관점에서만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어휘확산이론의 증거로 제시되었었다. 신문법학파적 관점에서는 대안으로서 방언 차용이 제시되었었지만 이는 여타 방언에서는 유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고 오직 내적 변화에 기인된 어휘확산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처음의 주장이었다.

潮州 방언의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Ting은 신문법학파의 가설을 견지 하면서 이를 문백 이독이 섞여 있는 방언적 특색으로 설명하면서 어휘확산적 설명을 반박하였다. 즉 그의 주장에 따르면 2b 성조는 주로 문언음(글말)에서 기인된 것이고, 3b 성조는 주로 백화음(입말)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반박에 대하여 어휘확산론자들은 90년대 이후 Ting의 주장을 인정하여 외적 요인에 의한 변화 현상을 인정하기에 이른 것이다.(Wang and Lien 1993) 또한 아울러 문언음과 백화음의 서로 경쟁적인 변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 공존하는 두 변화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내고 이를 ‘양방향 변화’라고 하였다.

결국 90년대 이후의 어휘확산이론은 신문법학파의 가설을 일부 수용하면서 서로 보완적인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VI. 결 론

이상에서 신문법학파의 규칙성 가설과 어휘확산 이론이 어떻게 대립하

는지를 설명하였고 또한 두 이론이 어떻게 통합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음성변화 이론의 발전에 있어서 어휘확산이론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면에서 중대한 공헌을 하였다. 첫째 표면적으로 대립하는 것으로 보이던 신문법 학파의 규칙성 가설과 어휘확산이론은 사실은 서로를 배제하는 대립적 관점이 아니라 서로를 보충해주는 상보적 관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어휘확산이론은 규칙성 가설이 포함하지 못하는 영역을 이론적으로 설명해 줌으로써 음성의 역사적 변화를 해석하는 관점을 한층 넓혀 주었다고 하겠다. 둘째 어휘확산이론은 규칙성 가설이 설명하지 못한 음성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는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이다.

규칙성 가설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론화된 음성변화 이론은 어휘확산이론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획득하고 그 설명 범위를 더욱 넓힐 수 있었다. 또한 어휘확산이론은 이전의 언어변화 이론이 다루지 못했던 변화의 진행 양상이 어떠한가하는 이른바 ‘전이의 문제(transition problem)’를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언어변화이론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 할 수 있다.

<參考文獻>

- McMahon. (1994) *Understanding languag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Cambridge
- Wang W S-Y. (1969) *Competing changes as a cause of residue.* Language 45:9-25
- Mesthrie R. et al (2000) *Introducing sociolinguistics* John Benjamins, Philadelphia
- Chen M. (1972) *The time dimension : contribution toward a theory of sound change* Foundations of Language 8 457-98
- Labov W. (1981) *Resolving the Neogrammarian controversy.*

Language 57:267-308

_____. (1994) Principles of Linguistic Change pp206-247

Aitchson I. (1991) Language Change: Progress or Decay? Cambridge
university, Cambridge

Wang and Lien (1993) "Bidirectional Diffusion in Sound Change"
In Jones 1993: 345-400

Jones, Charles (1993) Historical Linguistics : Problems and
Perspectives. New York: Longman

<Abstract>

Neogrammarian regularity hypothesis represents the phonetically gradual, lexically abrupt sound change. Lexical diffusion, on the contrary, suppose the phonetically abrupt, lexically gradual sound change. According to Labov, Neogrammarian change type and lexical diffusion change type coexist in sound change, so these two seemingly oppositional theories, in fact, mutually complementary. In this respect, lexical diffusion contributed to the study of sound change by fundamentally broadening its horizons.

주제어 : 어휘확산이론, 상보적 관점, 규칙성 가설